



김원경 마리아 | 사이클 선수

## I 나에게 성호를 긋는다는 것은

저는 주일, 성당에서만 성호를 그었던 신자였습니다. 평소에 성호를 긋자니 부족한 제 자신의 행실이 떠올라,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많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시합 때가 되면 더 주님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. ‘잘하게 해주세요’가 아닌 ‘그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’라는 기도와 함께 늘 시합을 하곤 했지만 성호는 긋지 못했습니다. 우연히 한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요.

그 영상은 바로 김연아 선수의 시합 영상이었습니다.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성호를 긋고 당당히 연기를 시작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‘나도 하고 싶다. 나도 해야겠다’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

늘 마음속에서만 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.

처음엔 버릇이 들지 않아서 의식적으로만 성호를 긋고 훈련과 시합에 임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주님께 향한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. 저는 그 반대로,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성호를 그을 수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

‘이 부끄러운 마음마저도 지켜봐 주셨던 것은 아닐까,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주시다 그 김연아 선수의 영상을 우연으로 가장해 보내주셨던 것은 아닐까’라는 느낌도 들었

습니다. ‘성호를 그을 자격이 없다’라는 마음은 오롯이 제 시선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것을 깨닫고 나니 불안함과 걱정이 앞섰던 시합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마음 편히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답니다.

성호를 긋고 시합에 임한 지 어느덧 3년째가 되었을 때입니다. 관중석에서 제 경기를 보고 계신 성함도 모르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며 따스히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합니다. 또 “선배님, 저도 천주교 입니다”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후배들을 보면 왠지 모를 책임감도 생깁니다.

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이런 기도와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

성호를 긋고 나서부터는 나라는 사람이 이 자전거로 국가대표까지 할 수 있게 쓰인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겸손을 알려주실려 그 영상을 보게 하신 건 아닐까요?

제가 김연아 선수를 보고 용기를 낸 것처럼, 말씀의 이삭을 정독하시는 많은 분께도 제 글이 용기 한 방울이길 염원해 봅니다.



### 미사 때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가 있나요?

제2차 바티칸공의회 문헌 <전례헌장> 48항은 “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국외자나 말 없는 구경꾼처럼 끼어 있지 않고, 예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인다”고 언급하면서 미사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. 미사 때 합장을 하거나 손을 가지런히 모아 잡은 분, 팔짱을 끼고 있는 분, 뒷짐 지고 빼딱하게 서있는 분들도 눈에 띄니다.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떤 몸가짐을 할까를 생각하고 그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글\_『교회상식 속풀이』 | 바오로딸 발행